

[윤승현 교육학 논술] 2014년 중등 교육학논술 기출 해설

[논제]

다음은 A 중학교 초임 교사인 박 교사와 경력 교사인 최 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다음 대화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를 2가지 관점(① 잠재적 교육과정, ② 문화실조)에서 진단하고,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안을 3가지 측면(① 협동학습 실행, ② 형성평가 활용, ③ 교사지도성 행동)에서 각각 2가지씩만 논하시오. [20점]

박 교사 : 선생님께서는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 학교의 일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으시죠? 저는 새내기 교사라 그런지 아직 수업이 힘들고 학교 일도 낯섭니다.

최 교사 : 저도 처음에는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교직 생활이 힘들었지요. 특히 수업 시간에 반응을 잘 보이지 않으면서 목석처럼 앉아 있는 학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박 교사 : 네, 맞아요. 어떤 학급에서는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해도, 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도 몇몇은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에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또한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몇몇 학생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지 수업에 관심도 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최 교사 : 선생님의 고충은 충분히 공감해요.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박 교사 : 그럼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동기 유발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겠네요. 이를테면 수업방법 차원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 가며 학습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최 교사 :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다만 학생들끼리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할 때는 무엇보다 서로 도와 주고 의존하도록 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지요. 그러한 구조가 없는 경우에는 수업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박 교사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 저는 수업방법뿐만 아니라 평가에서도 고민거리가 있어요. 저는 학기 중에 수시로 학업성취결과를 점수로 학생들에게 알려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성적이 좋은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보고 실망하는 것 같아요.

최 교사 : 글썄요, 평가결과를 선생님처럼 그렇게 제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박 교사 :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가 교사의 지도성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최 교사 : 그렇죠. 교사의 지도성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교사는 지도자로서 학급과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도성을 발휘해야겠지요.

박 교사 :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교사로서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사 : 그래요, 선생님은 열정이 많으니 잘하실 거예요.

[배점]

-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잠재적 교육과정 관점에서의 진단 [3점]
- 문화실조 관점에서의 진단 [3점]
- 협동학습 실행 측면, 형성평가 활용 측면, 교사지도성 행동 측면에서의 동기 유발 방안 논의 [9점]

[윤승현 예시답안]

수업의 성공여부는 학습동기 유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학습동기 유발에 실패하여 학생들이 소극적인 행동에 머문다면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제시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이유와 그 해결방안을 학습동기 측면에서 논해본다.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였을 것이다. 첫째,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진단해보면 교사가 열정, 온정과 감정이입, 긍정적 기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생활에서 은연중에 배우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이 수업에 소극적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해주는 열정,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온정,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는 감정이입, 교사의 긍정적 기대(자성예언)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결여하여 그런 모습을 학생들이 은연중에 학습한 결과 수업에서 소극적 행동을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문화실조의 관점에서 진단해보면 학생 가정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소극적인 행동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실조는 인간발달에 필요한 문화요소가 결핍되거나 과잉되거나 시기에 맞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지적 사회적 발달의 지연이나 왜곡현상을 의미한다. 저소득층 가정, 결손가정, 다문화 가정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은 사회화의 초기에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접하지 못해 학교 수업에 필요한 문화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가 대부분 중상류층의 문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습의욕을 상실하여 수업에서 소극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수업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까? 먼저, 협동학습의 실행 측면에서 협동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협동학습을 하면 경쟁위주의 개인학습에서처럼 만성적인 실패자를 만들지 않고 인지적 정의적 발달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성과 학습과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협동학습을 선택,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협동적 보상구조에 중점을 둔다면 능력별 집단학습(STAD)를 실시할 수 있다. STAD는 집단보상이 동기를 유발하여 협동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협동적 과제구조에 중점을 둔다면 직소모형을 적용해서 협동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즉, 과제난이도가 비슷한 소주제로 되어 있는 주제를 다룰 때는 직소모형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형성평가를 활용해서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형성평가는 수업 진행 중에 실시하는 평가로서 절대평가 형식을 취한다. 이 같은 형성평가 활용방안에는 첫째, 학습곤란을 진단하여 개별학생에게 맞는 학습의 개별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 교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향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결과를 피드백해줌으로써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지도성 행동의 측면에서 학생의 학습동기가 낮은 상황에서는 지시형 혹은 지원형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쉬와 블렌차드는 구성원의 상황, 즉 구성원의 능력과 동기에 따라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첫째, 학습동기도 낮고 학습능력도 낮을 경우에는 높은 과제 낮은 관계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시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둘째, 학습동기는 낮는데 능력이 적절할 때는 낮은 과제 높은 관계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원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능한 교사는 학습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학습동기를 잘 유발할 줄 안다. 따라서 초임교사는 멘토링을 비롯한 다양한 장학방법을 활용하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윤승현 통합 교육학논술 ⇨ 쉽다, 빠르다, 강하다!!

비활성적 지식은 이제 그만, '논술작성법+핵심이론+기본문제' 동시 해결, 1-2월 교육학논술 기본반 개강

※ 강의노트

- 잠재적 교육과정 측면에서 학생과 학생이 상호작용하여 소극적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 협동학습 실행방안에서는 구체적인 모형을 언급하지 않고 타당한 방안을 언급할 수 있다.
- 교사지도성 행동방안에서는 이외에도 리피트와 화이트의 지도성 행동이론(민주형, 권위형, 방임형), 범스의 거래적/변혁적 지도성이론, 바쓰의 카리스마적/변혁적 지도성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윤쌤 편지]

※ 밤늦게 서야 급하게 논제 읽어보고 생각나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승현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합격의 문을 열 때까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여러 쌤들한테 걸려 온 전화가

교육학논술 쉽게 나와서 잘 썼다는 것이었는데

이제서야 평가원에 들어가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 의외로 만만한 문제는 아니네요.

많은 쌤들이 수렁에 빠졌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다 익숙한 논점들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 문화실조, 협동학습, 형성평가, 교사의 지도성

교육학논술을 준비해 온 쌤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은 스쳐갔을 키워드들입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을 다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요구에 맞게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죠.

그렇다면 이번 논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특징1 :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한 논점들

등장한 주제는 모두 익숙한 것들입니다.

9-11월 강의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었으므로

여러 주제를 다루었고 이번 논점들은 거기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파이널 20제 강의에서도 각 주제들을 직간접으로 살펴보았고

협동학습이나 교사의 지도성 같은 경우는 좀더 깊이 있게 다루었지요.

1-2월 교육학논술 기본반, 3-4월 영역별 심화반, 5-6월 핵심문제반, 7-8월 실전반, 9-11월 모의고사반

[윤승현 통합 교육학논술] 희소고시학원, 쌤플러스,

윤승현 통합 교육학논술 ⇨ 쉽다, 빠르다, 강하다!!

비활성적 지식은 이제 그만, '논술작성법+핵심이론+기본문제' 동시 해결, 1-2월 교육학논술 기본반 개강

특징2 : 5영역에 걸쳐 출제

먼저 이 번 논제의 특징은 무려 논점을 5개로 쪼갰다는 것입니다.

5월 추시 때 3개였는데 거기에 +2한 것은 내용 타당성에서 문항의 대표성을 확보해보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항의 대표성에 치우치다보니 각 논점의 완결성은 미흡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논술'의 생명은 논술인데 전반부(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점 분석 = 문제발견)와 후반부(이 문제의 해결)가 논리적인 연결성이 별로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규명했다면 해결책 역시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나와야겠죠.(문화실조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다양한 영역을 소화하려다보니 논제 전체의 논리적 흐름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징3 : 가짓수 제시

강의에서 누차 예견했던 대로 방안의 가짓수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번 추시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 서술방식이 열려있고 채점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가짓수를 정해서 물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특징4 : 논리적 융합적 사고력의 중요성

이번 논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논점이 담고 있는 소주제가 비교적 수월한 것들이었지만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하면 고득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각 논점에 등장하는 핵심개념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추론능력이 떨어지면 타당한 답을 찾기 어려운 논제였습니다. 사실 형식적인 주제는 학습동기 유발이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은 단지 외적인 포장일 뿐입니다. 지난 5월 추시 논제는 학습동기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다루는 특정한 이론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것이지만 이번 논제는 학습동기와 관련된 교사변인과 교수변인을 중심으로 학습동기를 유발방안을 모색하게 했다는 점에서 더 차원 높은 유연한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학논술을 준비하는 쌤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논점 분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1) 각 논점의 배점의 의미

먼저, 배점이 5항목 모두 3점입니다. 일단 후반부의 세 측면에서 동기유발방안 2가지씩 제시하는 것이 각각 3점이라는 의미는 가짓수마다 1.5점이 아니라 1점이라고 가정한다면 각 측면의 핵심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1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부 문제 규명에서도 잠재적 교육과정과 문화실조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1줄 정도)이 1점, 그 관점에 따른 현상의 해석이 2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 첫째 논점 - 소극적 행동에 대한 잠재적교육과정 관점의 분석

수업에서 보이는 학생의 소극적 행동(현상, 결과)가 어떤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인 때문에 발

1-2월 교육학논술 기본반, 3-4월 영역별 심화반, 5-6월 핵심문제반, 7-8월 실전반, 9-11월 모의고사반

[윤승현 통합 교육학논술] 희소고시학원, 쌤플러스,

윤승현 통합 교육학논술 ⇨ 쉽다, 빠르다, 강하다!!

비활성적 지식은 이제 그만, '논술작성법+핵심이론+기본문제' 동시 해결, 1-2월 교육학논술 기본반 개강

생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인데 가장 1차적인 요인은 교사의 모습이겠지요. 7,8월 강의부터 학습동기 영역을 다룰 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실전모의고사 책 맵 252쪽, 관련 논제 67) 기억나시죠? 학습동기에 미치는 교사변인!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는 교사의 '열정', 모든 활동은 관계성에 기초해있으므로 늘 가져야 하는 교사의 온정과 감정이입, 어느 학생이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교사의 긍정적 '기대', 이런 정의적인 요소들이 교사에게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학생들이 은연중에 학습하여 소극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실전 모의고사 교재 논제 89번 '잠재적 교육과정 이론' 345쪽에서 다루었습니다.)

3) 둘째 논점

어느 논점이든 간략하게 용어의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 1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둘째 논점에서도 문화실조의 개념을 (발달에 필요한 문화적 요소가 결핍 혹은 과잉되거나 시기가 부적절하여 나타나는 지적, 사회적 발달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현상) 서술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제시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학생(저소득층 가정, 결손가정, 위기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경험한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적정수준의 문화를 습득할 수 없었거나, 학교의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중상류층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문화실조는 9,10월 강의와 파이널 모고에서 다루었습니다. 실전모의고사 교재 논제 83번 322쪽 '다문화교육, 문화실조론 vs 문화상대주의')

3) 셋째 논점 : 협동학습의 실행방안

강의에서 교수·학습영역에서 낸다면 제일 먼저 내고 싶은 내용이라고 했는데 한 논점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논점부터 중요한 것은 해결 '방안'을 쓰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방안은 각각 '실행', '활용', '행동'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컨대 협동학습이나 형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써놓았다면 요구조건에서 빗나간 답안이겠지요. 이러 조건을 바탕으로 일단은 '방안'을 2가지로 구분해서 써야합니다. 협동적 보상구조를 활용한 능력별 집단학습(STAD)와 협동적 과업구조를 활용한 과제분담학습(직소)와 같은 가장 대표적인 협동학습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요. 이런 방법 외에도 학습주제와 학생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협동학습 방안을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 학습집단을 구성할 때 학습능력, 성, 가정환경 따위를 고려한 것, 학습집단 간 적대적 경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집단을 재편성해주는 것 등도 의미미한 방안일 수 있겠지요. 어쨌거나 내용이 다른 방안을 2가지 쓰면 됩니다. (이 내용은 역시 9,10월 강의와 파이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4) 넷째 논점 : 형성평가의 활용방안

평가 역시 가장 유력한 출제영역이라고 했는데 형성평가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형성평가의 활용 방안은 무엇일까요? 9,10월 강의와 파이널에서 평가의 3가지 기능(활용방안)을 정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보(학업성취수준, 서열) 제공, 학습동기 유발, 교사의 수업개선 자료로 활용이었지요. 형성평가는 절대평가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서열'만 제외하면 되는 거니까,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학습동기를 유발하거나, 평가결과를 피드백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거나, 교사의 수업 개선자료로 활용하여(학습곤란을 진단하여 개별학생에게 맞는 학습의 개별화를 추구해서)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방안 등으로[2가지만] 서술한다면 무난

1-2월 교육학논술 기본반, 3-4월 영역별 심화반, 5-6월 핵심문제반, 7-8월 실전반, 9-11월 모의고사반

[윤승현 통합 교육학논술] 희소고시학원, 쌤플러스,

윤승현 통합 교육학논술 ⇨ 쉽다, 빠르다, 강하다!!

비활성적 지식은 이제 그만, '논술작성법+핵심이론+기본문제' 동시 해결, 1-2월 교육학논술 기본반 개강

하겠네요. (교재 실전모의고사 문제 95번 '수업과정 중에 실시하는 평가'에 이 논점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5) 다섯째 논점 : 교사지도성의 행동방안

내용의 타당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항의 적절성이 미약하여 가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논점입니다. 교사지도성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어떤 이론을 특칭해 주었다면 답안 작성이나 채점이 쉬웠을 텐데 다른 논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특정 이론을 지칭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교사지도성 '행동'보다는 '특징'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9,10월은 물론 파이널 20제 특강 마지막에서 다른 논제에서도 다루었는데 지문에서 '학급과 학생의 상황'이라는 내용에서 주목해 본다면,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요. 강의에서도 상황에 따른 네 가지 지도성을 문답법으로 진행하면서 확인하였듯이 동기가 낮을 경우 가정할 수 있는 지도성은 지시형과 지원형입니다. 하지만 거래적/변혁적 지도성 이론, 지도성 행동 이론과 관련해서 민주형 지도성(바람직하지 않은 지도성은 권위형, 방임형)으로 접근해서 답안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2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교재 실전모의고사는 문제 127번 '지도성이론' 489쪽에 이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1차 후 1주일 동안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최종합격을 좌우하니까요.

이틀 꼭 쉬시고 다음 주 화요일(10일)부터

심층면접 저와 함께 달려보게요^^ 화팅!!!!

1-2월 교육학논술 기본반, 3-4월 영역별 심화반, 5-6월 핵심문제반, 7-8월 실전반, 9-11월 모의고사반

[윤승현 통합 교육학논술] 희소고시학원, 쌤플러스,